

EPL 2025/26 일정,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확실히 잡혀도 마음이 편하더라. 특히 축구중계 보려고 하루를 비워두는 스타일이면 더 그렇고. 이번 시즌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2025년 8월 15일 개막**이고, **2026년 5월 24일에 종료**로 확정돼 있어. 이 두 날짜만 기준으로 캘린더를 먼저 깔아두면, 나중에 경기별 킥오프 시간만 채워 넣으면 끝이야.

그리고 오프닝은 이미 공지가 나와 있어. **리버풀 vs AFC 본머스, 2025년 8월 15일 20:00**. 이 한 경기를 캘린더 맨 앞에 박아두면, “이번 시즌 진짜 시작했구나”가 바로 체감돼.

이 글에서는 EPL 2025/26 일정 종료일이 **5/24**까지라는 점을 중심으로, 축구중계 보는 사람 기준으로 “마감 캘린더”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풀어볼게. 중계 채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 해외축구중계까지 같이 보는 사람, 축구중계사이트에서 일정 확인하는 [축구중계사이트](#)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말해볼게.

먼저 큰 틀, 개막과 종료를 캘린더에 먼저 고정하기

캘린더는 경기 하나하나를 다 넣기 전에도 역할이 있어.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 시즌이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이번 시즌 내 생활 리듬을 어떻게 배치하지?”였거든.

그래서 EPL 2025/26을 시작일과 종료일로 먼저 묶어두면 좋아.

- 시작: 2025년 8월 15일
- 종료: 2026년 5월 24일

여기서 포인트는 일정 마감일이 넉넉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 자체가 있는 시즌 구조**라는 거야. 5/24로 “시즌 닫힘”을 고정해두면, 나중에 플레이오프나 컵대회 같은 다른 경기 일정과 헷갈릴 확률이 줄어들어. 특히 해외축구중계 보면서 동시에 다른 리그도 끼워 넣는 사람은, 캘린더가 지저분해지기 쉬운데 마감일이 잡혀 있으면 정리가 된다.

오프닝 경기 하나로 “내 캘린더의 기준”을 만들어두기

리버풀 vs AFC 본머스가 **2025년 8월 15일 20:00**으로 공지된 건 캘린더 초안을 만들기 딱 좋은 재료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8월 15일 EPL 시작”까지만 적고 끝내는데, 나는 여기에 “오프닝 킥오프 시간”까지 박아 넣는 걸 추천해.

이유는 간단해. 사람은 킥오프 시간이 있어야 실제 생활에 맞춰 준비를 하거든. 경기 전후로 뭘 할지, 중계 시작 몇 분 전에 들어가야 할지, 그날 퇴근하고 바로 쉼 걸 건지 등등.

특히 해외축구중계로 시차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엔, 캘린더의 기본 시간이 정확해야 뒤에 일정도 덜 틀어진다. “20:00으로 보이는데 내 시간 기준으로 맞나?” 같은 의심이 생기면, 초반부터 캘린더를 갈아엎게 되거든. 그러니까 오프닝은 확실하게.

[무료 해외축구중계](#)

축구중계에서 일정 확인이 핵심인 이유, 시차와 실제 중계가 갈라질 수 있어서

축구중계는 그냥 “경기가 언제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확인해야 할 게 몇 가지 더 있어.

첫째는 **정확한 시작 시각**. EPL은 주말과 평일 편성이 섞이기 때문에, 같은 요일이라도 시간대가 흔들릴 수 있어. 둘째는 **중계 채널이나 플랫폼**. 어떤 날은 어디에서 보이고, 어떤 날은 다른 곳에서 제공되거나, 중계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지. 셋째는 **한국과 현지의 시차**. 이게 결국 캘린더에 들어갈 “내 시간”을 결정한다.

검증된 관점에서도, 경기 시간을 확인할 때는 리그 공식 일정표와 실제 제공 여부를 함께 보는 걸 권하더라. 해외축구중계 페이지들은 보통 리그 묶음으로 보여주기도 해서, 한 번에 탐색하기엔 편하지만, 최종 확정은 경기별 시작 시각이랑 내 시간 변환이 맞는지로 잡아야 안전해.

즉, 캘린더는 “일정만” 넣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 나는 캘린더를 만들 때 항상 “시간과 제공처”를 최종 체크하는 흐름을 같이 가져가.

캘린더를 만드는 방식 2가지, 빠르게 쓰는 법과 덜 헷갈리게 하는 법

여기서부터가 실전이야. EPL 2025/26 일정이 길기 때문에, 캘린더를 만드는 방식도 본인 성향에 맞춰야 해.

한 가지 선택지는 “일정만 빠르게 넣기”야. 리그 일정 기준으로 경기들을 쭉 적고, 방송/스트리밍은 실제로 경기 당 일에 확인하는 방식. 이걸 빠른 대신, 중계권이나 플랫폼 변동이 있을 때 헷갈음을 할 수 있어.

다른 선택지는 “내가 보는 기준을 먼저 세팅하고, 경기별로 그 기준에 맞춰 넣기”야. 예를 들어 캘린더 이벤트에 제목에 팀명과 Kickoff 시간만 넣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로 눌러 들어갈 수 있도록 중계 채널 라벨이나 메모를 붙이는 거지. 이 방식은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시즌 중반부터 “또 어디서 보지?” 같은 소모전이 줄어들어.

나는 보통 시즌 초반엔 덜 헷갈리게 가는 쪽이 좋다고 느꼈어. 특히 해외축구중계를 같이 보면, 플랫폼이 섞일 때가 있으니까. 대신 캘린더 이벤트에 뭘 적을지 정해두면 작업 시간이 줄어든다.

실제로 캘린더에 뭘 넣을지, 이벤트 템플릿부터 잡자

캘린더는 정보가 많을수록 편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찾기 어려워져. 그래서 나는 EPL 이벤트 템플릿을 “짧고 확실하게” 잡는 편이야.

예를 들면 오프닝 경기 이벤트를 이렇게 만든다고 치자.

- 제목: EPL - 리버풀 vs AFC 본머스
- 날짜: 2025년 8월 15일
- 시간: 20:00
- 메모: 시즌 시작, 해외축구중계 시차 변환 확인, 중계 제공처 확인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날짜와 시간은 “캘린더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고정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메모에는 “내가 당일에 확인할 체크 포인트”를 짧게 넣는다는 것.

캘린더는 결국 너의 습관을 담는 도구니까, 당일에 필요한 정보만 남겨두면 된다.

만들기 전에 체크해야 할 딱 5가지 (이대로만 해도 시행착오 줄어듦)

아래는 캘린더를 만들 때 내가 매번 다시 보게 되는 체크 포인트들이야. 리스트는 짧게 갈게.

1. EPL 2025/26의 시작은 2025년 8월 15일, 종료는 2026년 5월 24일로 먼저 캘린더 범위를 잡기
2. 오프닝 경기 리버풀 vs AFC 본머스는 2025년 8월 15일 20:00으로 “초기 기준 이벤트” 만들기
3. 경기별 시작 시각을 확인할 때, 리그 공식 일정 기반인지 점검하기
4. 내 캘린더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확실히 맞추기
5. 축구중계사이트를 쓸 거면, 경기 일정과 실제 중계 제공 여부가 같이 확인되는지 확인하기

EPL 경기별로 일정 채우는 흐름, “입력”보다 “검증”이 더 중요해

이제 본론이야. EPL 2025/26 전체 경기들을 캘린더에 채우려면 결국 경기별로 킥오프 시간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 자체보다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더라.

내가 추천하는 흐름은 이거야.

먼저, 리그 공식 경기 일정에서 “각 라운드의 킥오프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말과 평일이 섞인다는 감각을 잡는 거야. 다음으로, 각 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 마지막으로, 캘린더에 이벤트를 넣고 나서도 “내가 보는 날”에 한 번 더 확인한다.

왜 굳이 마지막 확인을 하나면, 캘린더 이벤트가 이미 만들어져도 실제 축구중계 제공 형태가 경기 당일에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캘린더는 맞는데 시청 준비가 틀어지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나는 최소한 “중계 채널/플랫폼을 당일에 확인”하는 루틴을 남겨.

이런 루틴이 쌓이면, 해외축구중계까지 들어가도 시즌 전체 운영이 깔끔해진다.

5/24 종료일을 캘린더에 “마감 이벤트”로 넣는 게 은근히 유용한 이유

사람은 마감이 있어야 정리가 된다. EPL 2025/26은 **2026년 5월 24일 종료**로 확정돼 있으니까, 그 날짜를 캘린더에 “마감”으로 표시해두면 좋아.

예를 들어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 제목: EPL 2025/26 마감 (시즌 종료)
- 날짜: 2026년 5월 24일
- 메모: 시즌 끝 - 다음 시즌 일정 확인 준비, 컵대회/국가대회 시청 계획 재정렬

이 마감 이벤트는 단순히 “마지막 경기일” 알림이 아니야. 시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리그나 국가대표 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전환 타이밍을 스스로 관리하게 해준다. 특히 해외축구중계 보는 사람은 리그가 겹치면 일정이 뒤섞여서 스트레스가 커지잖아. 마감이 있으면 다음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생긴다.

라리가, 분데스리가까지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캘린더가 더 빨리 지저분해짐

EPL만 볼 땐 그래도 버틸 만한데, 해외축구중계를 하다 보면 라리가나 분데스리가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 실제로 해외축구중계 페이지들에서는 여러 리그를 묶어서 소개하는 구성이 많아서, 한 번 쓱 보다가 “오늘도 봐야 하나?”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캘린더를 “리그별로 레이어를 분리”하는 거야. EPL 이벤트만 한 색으로 고정하고,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는 다른 색이나 다른 캘린더로 분리하면 검색할 때 편해져. 그래야 중계권이나 킥오프 시간이 겹칠 때 판단이 빨라진다.

그리고 라리가, 분데스리가 같은 리그는 시즌 종료 날짜가 주말 범위나 특정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라리가는 **2026년 5월 23~24일 주말**로 안내되고, 분데스리가는 **2026년 5월 16일** 종료로 안내돼. EPL이 5/24로 딱 떨어지니까, 마감 레이어를 잘 만들어두면 “어느 리그가 끝나고 어느 리그가 이어지는지”가 눈에 보인다.

실제 “캘린더 파일”로 옮기는 작업 팁, 포맷보다 일관성이 먼저

캘린더를 휴대폰에 쓰든, 데스크톱에 쓰든, 결국 핵심은 “이벤트가 똑같은 방식으로 쌓이는지”야. 포맷을 예쁘게 만드는 건 나중 문제고.



나는 이벤트마다 아래 같은 규칙을 추천해.

첫째, 제목 규칙을 고정해. 예를 들면 "EPL - 홈팀 vs 원정팀"처럼. 둘째, 시간은 무조건 동일한 기준으로 표기해. 한국 시간 기준인지, 현지 시간 표기인지 헷갈리면 캘린더가 아니라 복권이 된다. 셋째, 메모에는 당일 확인 포인트만 짧게 남겨. "중계 제공처 확인" 같은 문장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이렇게만 해도 시즌 중반에 “어제 이벤트랑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데 왜 오늘은 다르게 되어 있지?” 같은 실수가 줄어들더라.

자주 생기는 실수들, 그리고 어떻게 피할지

EPL 중계를 캘린더로 관리할 때 사람들이 제일 자주 부딪히는 지점이 몇 개 있어.

첫 번째는 “오프닝만 넣고 끝내는 경우”. 초반에 시간 기준을 못 잡아두면, 이후 경기들을 넣을 때 한국 시간 변환이 들쭉날쭉해진다. 그러니까 리버풀 vs AFC 본머스 오프닝 경기 이벤트를 기준으로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해.

두 번째는 “경기 시간은 캘린더에 넣었는데 방송 준비를 안 하는 경우”. 캘린더 알림이 올릴 때 이미 플랫폼 화면을 열어두지 않으면, 해외축구중계는 특히 허둥대게 된다. 이걸 내 경험상 체력 소모가 커서, 메모에 “중계 제공처 확인”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됐어.

세 번째는 [epl중계](#) “마감일을 안 적어두는 경우”. 시즌이 길면 길수록,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리는 느낌이 생겨서 다음 계획이 비어버릴 때가 있다. EPL 종료가 5/24로 확정돼 있으니까, 그걸 캘린더에 마감 이벤트로 넣는 게 확실히 유리해.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캘린더 작업 순서 5단계

이건 “캘린더를 실제로 완성하는 작업 순서”에 가까워. 리스트를 하나만 더 쓸게.

1. 2025년 8월 15일 시작부터 2026년 5월 24일 종료까지 캘린더 범위를 잡기
2. 리버풀 vs AFC 본머스(2025년 8월 15일 20:00)를 첫 이벤트로 만들어 시간 기준 확정
3. 경기 일정표에서 라운드 단위로 킥오프를 훑으며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변환 규칙 정리
4. 경기별 이벤트를 “EPL - 홈 vs 원정” 제목 규칙으로 빠르게 쌓기, 메모는 짧게 통일
5. 시즌 중 한 번이라도 실제 중계 제공 여부와 플랫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메모 규칙을 조정하기

마무리 대신, 당신 캘린더를 바로 ‘쓸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질문

지금 질문 하나만 해보자. “내가 EPL 2025/26 일정을 캘린더에 넣는 이유는, 경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야, 아니면 당일엔 중계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야?”

전자는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오프닝 기준 이벤트만 잘 잡아도 큰 문제는 없어. 후자라면 메모에 중계 제공처 확인 포인트를 남기고, 캘린더에서 이벤트를 누르는 동선까지 생각해봐야 해. 같은 경기라도 “준비 과정”이 달라지니까.

EPL 2025/26은 시작이 2025년 8월 15일, 종료가 2026년 5월 24일로 확정돼 있어. 이걸 먼저 박아두면, 축구중계 시즌이 덜 산만해지고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오프닝 리버풀 vs AFC 본머스(2025년 8월 15일 20:00)부터 지금 바로 이벤트로 만들어봐. 그 다음은 일정표만 제대로 끌어오면, 나머지는 습관대로 채워지더라.